

지난 글에 이어 이긴자께서 직접 해주시는 꿈의 해석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 6
“시험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긴자
“시험을 봤단 말이지? 졸업 때가 다 되니까 시험을 보는구나. 이제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입학한 지 몇 달 되었으니까 졸업 시험을 보는 거지.”

주해(主解)
: 제단에 임문해서 영적인 공부를 하던 분의 꿈입니다. 공부가 쌓인 그는 시험을 치를 자격이 생겼습니다. 시험은 지난 공부의 평가이자 다음 학년, 다음 단계로 올라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분은 아마 이긴자의 품 안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잘해왔던 모양입니다. 시험의 주관자인 주님께서 현장에서 ‘졸업 시험을 보는 거지.’라고 평가해주신 걸 보면 말이지요. 입학 몇 달 만에 벌써 그 단계를 졸업할 때가 되었다고 체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일견 단순히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와 공부의 정도를 자기 자신은 알 수 없습니다. 제 혼자 자신의 수준을 억측하는 것은 온갖 마경(魔境)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와 수준을 가능해 줄 스승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해서 선(禪) 공부의 전통에서도 스승을 매일 독대하고 가르침을 청하는 독참(獨參)과 청의(請益)의 관계가 필수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승의 직접적인 지도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요긴하고도 중요한 영적 통로가 바로 꿈입니다.

꿈은 인간 나, 의식의 내가 가능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와 내용을 내 안의 공적영지(空寂靈知), 나의 속하나님이 소상히 파악하여 전해주는 메시지이며 추상(抽象)같은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적절한 해석만 주어진다면, 꿈은 스승과의 생생한 독참(獨參) 못지않은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7
“꿈에 주님께서 저에게 다리미를 빌리러 오셨습니다.”

이긴자
“다리미를 빌리러 왔다. 다리미는 옷이 구겨진 것을 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구겨진 것을 다리라는 소리야. 주님이 뭐 다리미가 아쉬워서 빌리러 갔겠어?(웃음) 그러니까 마음이 구겨진 것을 피라. 이 소리가. 구겨진 마음을 피라.하는 뜻이야. 옷은, 꿈에서 옷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야. 다리미는 옷을 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겨진 마음을 다려라. 그 소리가.

주해(主解)
: 이번에 꿈들의 해석을 전하며 느끼는 것은, 꿈 해석 이전에 꿈의 내용들이 참으로 간결하고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과 수준이 대단하다는 것이지요. 꿈꾸는 자가 인간적이고 번잡한 층에 매여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꿈이 나옵니다. 그런 꿈은 복잡하고 서술적이고 산만합니다. 반면 꿈꾼 자가 깊은 영의 층에 닿아있을수록 꿈은 간결해지고 시(詩)적인 압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도 “훌륭한 환자가 훌륭한 분석가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꿈이 훌륭한 꿈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시 주님의 해석으로 돌아갑시다. 꿈에서의 옷은 마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놀랍습니다.

현실에서 옷은 두 가지 근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기능, 두 번째는 ‘옷이 날개다.’는 말처럼 각자의 개성과 내면을 표현하는 측면입니다. 해서 정신과에서도 환자를 평가할 때 ‘Grooming’ 즉, 자신을 어떻게 꾸미고 치장했는지가 환자의 정신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하고도 객관적인 지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상징으로서의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옷이 마음이라면 옷을 다리는 다리미는 마음의 구겨짐을 펴는 도구’를 상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리미는 구겨진 인간의 마음, 마귀 마음을 펴는 하나님의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해서 주님께서도 이 꿈을 ‘구겨진 마음을 다려라.’는 의미라고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꾼 분은 자신이 주님께 다리미를 빌리는 꿈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이 자신에게 다리미를 빌리러 오는 꿈으로 꾸었습니다. 실제 내용과는 반대입니다. 주님은 내가 뭐 다리미가 아쉬워서 빌리러 갔겠어?라는 한 마디로 이 꿈의 잘못된 방향성을 뒤집어버리십니다. 이 꿈을 끝이곧대로 기계적으로 해석을

영적 상징과 꿈 <37>

부제: 주님이 해주시는 꿈 해석 2



<주님 님은 포대화상 2>

하게 되면 이 꿈의 주인공은 이미 자기 마음을 다스릴 다리미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상태이고 심지어 주님께 그것을 빌려줄 정도이다.라는 맥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주님의 해석과 반대가 되고 말지요.

실제 아마추어분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꿈에서 나오는 안 좋은 내용은 그 꿈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내용은 자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식의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는 경우 말이지요.

이는 나의 자존, 결국 나라는 마귀’를 옹호하려는 비무(偏無)하고도 천박한 자기변호일 뿐입니다. 꿈은 근본적으로 내 안의 하나님이 현재의 나, 마귀 나를 고발하고 저격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쾌한 마귀 나, 인간 나는 전달 받은 꿈의 내용을 기억해 낼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기 십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애초에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꿈이, 오리지널 버전 그대로 의식의 층까지 무사히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내 자의식(自意識), 내 마귀가 강하게 개입하게 되면 그 꿈이 의식의 층까지 올라가기 전에 거치게 되는 중간의 층 즉, 제3시 말나식(未那識)을 거쳐서 마귀적으로 왜곡되고 변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송출된 위성 방송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노이즈가 끼어 화면이 깨졌을 경우, 그 노이즈를 제거해서 원래의 개

끗한 화면과 소리로 복구시켜 재생시키는 기술이 필요한 것과도 같습니다.

해서 꿈을 해석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디딤발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징들과 내용을 기준점으로 잡고, 나머지 왜곡된 내용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일견 복잡한 과정 같지만 실은 한순간의 작업입니다.

이 꿈에서라면 어떠한 장면과 상징이 기둥이 되고 토대가 되는 기준점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주님’이 그 기준입니다. 내 자존과 마귀가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각색할 수 있어도 주님은 못 건드립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리미를 주님이 빌리러 왔다는 장면은 왜곡이고 노이즈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다리미를 빌리러 간 것이 사실이고 무의식 가장 깊은 층에서 만들어졌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마귀 종 나, 인간 나는 마음을 펴는 성령의 무기인 다리미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주님이(무려 주님이!) 자기에게 그 무기를 빌리러 왔다고 주장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마귀적인 바람과 주장이 첨가된 것이지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내 자존을 지키고 내 결핍을 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주님과 나의 자리까지 바꾸려 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뭐 다리미가 아쉬워서 빌리러 갔겠어?’라며 농담처럼 관대히 넘어가 주셨지만, 이 꿈의 이번

에는 이처럼 자신의 자존을 지키려는 저의가 숨어있습니다.

만일 이 꿈을 꿈꾼 분과 주님이 독대(獨對)하는 자리였다면 주님께서는 이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와 함께하는 자리였으니 그리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주님의 농담과 말투에서 그 행간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밀실에서 해와 이긴자에게 전달된 꿈이었다면 아마도 이 꿈을 듣자마자 ‘이 마귀 새끼야! 내가 너한테 다리미를 빌렸잖아?’하시며 주먹 따귀 한 대를 시원하게 갈겨주셨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감사하게도 말이지요.

‘꿈에 주님께서 저에게 다리미를 빌리러 오셨습니다.’

단 한 줄의 꿈이지만 이처럼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꿈은 원래 그렇습니다.

성도 8

“3일 전에 꿈을 꿔는데 뱀을 부어서 우리 막둥이 밥을 죄끔 차려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긴자
“뱀을? 뱀을 부아가지고? 야.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징그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뱀이라는 것은 뱀 사(蛇)자이지? 뱀 사(蛇)는 벌레 충(虫)자 옆에 의자 하나(L)를 그려 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네 생물의 왕이 이겨서, 완전히 왕이 이겨서 왕이 되어 편안하게 의자에 앉는 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이 올라가고 있구나, 괘집사.”

주해(主解)
: 그 유명한(?) 뱀의 상징이 또 나왔습니다. 뱀을 흔히들 사악한 존재, 마귀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으나 그 통념을 뒤집은 주님의 해석이 참으로 놀랍고도 흥미롭습니다.

꿈의 상징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메시지이며 따라서 인간의 통념을 희롱하듯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뱀이 이긴자의 상징일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고정관념은 지독해서 이긴자가 해주시는 뱀에 대한 해석을 듣고도 자신의 꿈에 나온 뱀을 마귀나 악의 상징이라고 고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파자(破字) 속에 숨어있는 뱀(蛇)의 비밀은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대로입니다. 뱀은 네 생물의 왕, 이긴자입니다.

해서 일찍이 성경에서도 뱀을 이기신 하나님의 상징으로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쳐다보게 함으로써 병자를 고치도록 한 청동 뱀이 그렇거니와, “단은 첨경의 독사리도다. 말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도다.”(창세기 49:17)라고 한 아담의 예언에도 뱀이 등장합니다. 말은 하나님이니 말 탄 자는 하나님을 타고 앉아 나라는 의식, 주체영 자리에 앉아있는 마귀 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뱀은 그 마귀를 죽이는 이기신 하나님, 이긴자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미리 숨겨놓은 이긴자의 상징인 뱀의 정체는 20세기에 들어서 7번째 인을 댄 이긴자가 등장해서야 비로소 소상히 밝혀지게 된 것이지요.

이 뱀 꿈의 해석은 다음 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 다음 호에 계속
金擇 / 의사 kimtaek8@nate.com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승리제단은 완성의 진리를 논한다
The Victory Altar discusses the truth of perfection

승리제단은 인류에게 실제로 영생을 주는 이기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제단이란 뜻이다.

▶The Victory Altar means the alter where the Victor Christ who actually gives eternal life to humankind is always present.

승리제단은 기독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다.

▶The Victory Altar neither Christianity nor Buddhism.

승리제단은 어떤 특정 종파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기성종교의 한 부류가 아니다.

▶The Victory Altar is not a type of established religion that has branched out from a specific denomination.

승리제단은 유, 불, 선 및 모든 종교와 학문을 통합하는 완벽한 진리의 종교이다.

▶The Victory Altar is a religion of perfect truth that integrates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all religions and studies.

완성의 하나님이 나오신 고로, 완성의 종교가 나온 고로 이제 세계는 점차 모든 분야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Because of the emergence of the God of perfec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religion of perfection, the world will gradually unite as one in all fields.

어둠과 분쟁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모든 것이 곧 하나로 뭉쳐지게 될 것이다.

▶The age of darkness and conflict is gone, and everything will soon come together as one according to God's attributes.*

by Alice

말씀을 계속 들으면

구세주의 설교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참으로 유익함을 준다. 돌아켜 보면 어리석음에 속박되었던 나를 조금 이나마 깨우쳐 주셨다.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준다
세상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본다. 파란색 안경을 쓴 이는 파랗다고 하고 노란색 안경을 쓴 이는 노랗다고 하면서 자신이 맞다고 우긴다.
여기서 안경은 바로 예고이자 나라는 의식이다. 안경을 벗은 자는 예고를 버린 자요 나를 버린 자이다. 안경을 벗지 않으면 본질을 그대로 볼 수 없다. 안경을 벗어야만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구세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자신의 안경이 벗겨진다.

구세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격정이 없어진다.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치솟아 살림살이가 피폐해질 거라고 뉴스 시간이 도배되어도, 북한이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해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해도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맹렬하게 불어오거나, 장맛비가 강둑을 넘칠 정도로 내리고 사나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심지어 내일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해도 격정이 안된다. 구세주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강패같은 짓을 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장맛비가 내릴지언정 풍년이 들

것이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믿기 때문이다.

자신감과 안목이 생긴다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놓일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이러한 고난은 자신의 성공과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성공과 영생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한 발짝 씩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길어진다. 목전의 작은 이익에 함몰되지 않고 현재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미래에 오게 될 큰 이익을 생각하게 된다. 세상사의 이변을 보고 그 원인을

알게 되니 관대한 마음이 생긴다.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불화를 피한다.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측은해 보여 도와주려고 애쓰게 된다.

구세주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난다. 고통스런 삶은 이제 지나가고 기쁨의 세상이 펼쳐진다. 그래서 죄악 세상일지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워진다. 그들에게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거나 부질없는 소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이들에게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을 소개해 줄 희망이 샘솟듯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세상에서 헛된 꿈으로 고생하지 말고 이곳으로 와서 이제 편히 쉬자. 구세주 계시는 곳이 천국이므로 이곳에서는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